



연기자 이서진(왼쪽)과 이승기가 12일 서울 양천구 목동 SBS에서 열린 '리틀 포레스트' 제작발표회에 참석해 '절친' 호흡을 과시하고 있다. 김진한 기자 kwangshin00@donga.com



배우 성동일(오른쪽)과 배성우가 12일 서울 광진구 롯데시네마 건대입구에서 열린 영화 '변신' 시사회에서 '호러 킹'의 자신감을 드러내고 있다. 김종원 기자 won@donga.com

“승기 구애 때문에 출연” “아내 덕분에 공포연기” (이서진) (성동일) “싫다던 형, 열혈 돌보미” “사제복, 딱 내 스타일” (이승기) (배성우)

연예계 대표 ‘절친’ 이서진과 이승기가 다시 만났다. 12일 시작한 SBS 새 예능프로그램 ‘리틀 포레스트’가 새 무대다. 두 사람이 개그우먼 박나래, 연기자 정소민과 함께 강원도 인제의 짝박골에서 ‘돌볼 하우스’를 열고 아이들을 돌보는 모습을 담은 프로그램이다. 2012년 KBS 2TV ‘1박2일’ 등에 함께 출연한 뒤 지금은 같은 소속사에서 한술밥을 먹는 두 사람의 호흡에 대한 기대를 키운다.

‘리틀 포레스트’의 출발점은 이승기였다. 이날 오후 첫 방송에 앞서 서울시 양천구 SBS사옥에서 열린 제작발표회에서 연출자 김정우 PD는 “집사부일체”를 연출하며 만난 이승기가 ‘아이가 뛰어놀 수 있는 자연공간이 많았으면 좋겠다’는 말에 서부터 프로그램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승기는 이어 끝없는 ‘구애’로 이서진을 끌어들었다. 이서진은 “시골도, 아이들도 좋아하지 않아 프로그램에 출연할 생각이 없었는데 ‘내가 모든 걸 다 할 테니 함께 하자’는 이승기의 말에 결국 수락했다”고 털어놨 웃음을 자아냈다.

이서진을 ‘ 짝꿍’으로 낙점한 이승기는

“그와 함께하는 촬영이 순탄치만은 않았다”면서도 “늘 의욕이 넘치는 나를 ‘어른의 시선’으로 바라봐 줄 사람이 필요했다. 솔직하게 나에 대해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은 이서진 형 밖에 없었다”고 돌아봤다.

이서진은 앞서 tvN ‘꽃보다 할배’ 시리즈에서 이순재 등 선배 연기자들과 여행을 통해 쌓은 ‘돌볼 실력’을 다시금 발휘한다. “촬영하면서 결혼하지 말고 혼자 살아야겠다는 다짐을 더더욱 굳혔다”고 말하지만, 출연을 수락한 후 조리사 자격증부터 딸 만큼 프로그램 준비에 공을 들였다.

이승기도 이에 질세라 아동 심리상담 자격증을 취득한 후 아이들을 만났다. 그는 “우리는 ‘방송의 재미도 중요하지만 아이들이 즐겁고 행복하게 놀다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하다’는 말을 자주 나눴다”며 “촬영하면서 아이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자신들의 이 같은 노력이 담긴 프로그램의 성공을 확신했다. 이승기는 “촬영 중 무슨 행동을 했는지 하나도 기억나지 않을 정도로 몰입했다”고 말했다.

유지혜 기자 yjh0304@donga.com

배우 성동일과 배성우가 ‘호러 킹’을 노린다. 왕성한 연기활동에도 공포영화와는 인연이 없던 두 배우가 21일 개봉하는 ‘변신’을 통해 늦여름 극장가를 섬뜩한 공포로 물들인다. 영화 제목처럼 제대로 변신한 이들이 한동안 주춤한 한국 공포영화의 자존심을 다시 세울 태세다.

12일 서울 건대입구 롯데시네마에서 열린 ‘변신’(제작 다나크리에이티브) 시사회에서 만난 성동일과 배성우는 “오컬트(초현실)가 녹아있는 공포영화이지만, 한국적인 정서가 강한 작품”이라고 소개했다.

그저 호보성 멘트가 아니다. 한 가족 안에 스며든 악마를 쫓는 이야기인 ‘변신’은 구마사제와 엑소시즘 등 최근 한국영화 인기 소재를 적극 활용하며 탄탄한 서사를 담아냈다.

무엇보다 ‘호러 퀸’으로 상징되는 여성 캐릭터를 앞세워 오싹한 이야기를 펼쳐온 대다수 공포영화와 달리 ‘변신’의 두 축은 중년배우 성동일과 배성우란 점이 새로우면서도 흥미롭다. 웃기고 따듯

한 기존 이미지를 벗은 두 배우의 변화가 극의 완성도를 높인다.

특히 성동일은 ‘변신’으로 공포영화에 처음 도전했다. 다정한 아버지지만 악마가 깃든 순간 기이한 행동을 일삼는 모습으로 충격을 안기는 그는 “처음이지만 크게 고민하진 않았다”고 했다. 여유를 보인 데는 이유가 있다. “평소 아내가 가장 싫어하는 눈빛, 아이들이 가장 싫어하는 말투를 쓰면 공포연기가 저절로 됐다”며 “개인적으로도 남을 괴롭히는 역할을 더 좋아한다”고 밝혔다.

색다른 모습을 보이기는 배성우도 마찬가지다. 주 특기인 코믹 연기에서 벗어나 사명감 강한 사제로 극을 이끈다. ‘검은 사제들’의 강동원부터 ‘열혈사제’의 김남길까지 사제 역할과 이들이 입는 사제복이 일종의 ‘대박 징표’가 돼 왔다는 점에서 비교의 시선에도 놓인다. 이날 관련 질문을 여러 차례 받은 그는 구체적인 언급 대신 “양복점에서 맞춰서 인지 사제복 의상이 내 몸에는 잘 맞았다”고 답하며 웃었다.

이해리 기자 gofi1024@donga.com

연예뉴스 HOT 4

‘이상화 연인’ 강남, 한국 귀화 준비중



강남

일본 출신 가수 강남(본명 나메카와 야스오·32)이 한국 귀화를 준비 중이다. 소속사 디모스트엔터테인먼트 측은 12일 “지난해 말부터 고민해온 강남이 최근 한국 귀화를 결정했다. 이달 중에 귀화 신청서를 접수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한국인 어머니와 일본인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난 강남은 2011년 그룹 엠아비비로 한국에서 데뷔했다. 이후 ‘정글의 법칙’ 등 예능프로그램에서 활약해왔다. 올해 3월에는 스피드스케이팅 전 국가대표 이상화와 교제 사실을 공개해 화제를 모았다.

DHC 혐한 발언에 정유미 모델활동 중단



정유미

일본 화장품 브랜드 DHC 측의 ‘혐한’ 발언 논란에 DHC코리아 모델인 연기자 정유미가 해당 활동을 중단한다. 정유미의 소속사 에이스팩토리는 12일 “DHC 본사 측 발언에 중대한 심각성을 느껴 초상권 사용 철회와 모델 활동 중단을 요청했다”며 “DHC 관련 SNS 게시물도 삭제했다”고 밝혔다. 이어 2018년 체결한 모델 계약과 관련해 “재계약은 절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DHC 자회사 ‘DHC테레비’는 국내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본제품 불매 운동을 비하하고 역사 왜곡 발언이 담긴 유튜브 방송으로 논란을 샀다.

김우빈, 커피차로 연인 신민아 응원



김우빈

연기자 김우빈이 연인 신민아에 대한 애정을 공개적으로 드러냈다. 김우빈이 최근 신민아가 촬영 중인 JTBC 드라마 ‘보좌관’ 촬영장에 커피차를 보낸 사실이 12일 커피차 업체의 SNS를 통해 공개되면서 알려졌다. 김우빈은 현수막에 출연진과 스태프를 응원하는 문구와 함께 ‘특히 신민아님 아주 많이 응원합니다’고 넣어 눈길을 끌었다. 업체는 “김우빈이 직접 적은 현수막 문구에 기분이 좋아 보였다”며 신민아의 반응을 전했다. 두 사람은 2015년 7월 이후 4년째 교제 중이다.

슈주 신동, 건강상 이유로 당분간 휴식



슈주 신동

그룹 슈퍼주니어 멤버 신동이 건강상 이유로 활동을 잠정 중단한다. 12일 소속사 레이블S는 “신동이 매우 일시적인 증상으로 활동하지 못한다”고 설명하며 “하반기 슈퍼주니어 활동에 지장이 가지 않도록 충분한 휴식을 취하며 회복에 전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신동은 현재 출연 중인 채널A ‘아이콘택트’, ‘오늘의 운세’ 등에서 하차한다. 이후 9월 슈퍼주니어 정규 9집을 발표하고 9명 멤버 전원이 모인 완전체 활동에 나선다.

편집 | 심승수 기자 sss23@donga.com

‘중국어권 핫 피플’ 아이유…한한령이 아쉽네

tvN ‘호텔 델루나’ 관심에도 판매불가 중국, 동영상 우회 시청자 40만명이상

가수 겸 연기자 아이유(이지은)가 중국에서 얻은 높은 인기 속에 정자 자신의 작품을 정식으로 선보이지 못하는 아쉬움을 삼키고 있다. 주연 드라마인 케이블채널 tvN ‘호텔 델루나’가 ‘한한령(限韓令)’으로 인해 현지의 더 많은 관심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누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중국에서 아이유와 ‘호텔 델루나’의 인기는 기대 이상으로 치솟고 있다. 아이유가 가수로 활동하면서 쌓아온 높은 인지도를 바탕으로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중국판 트위터인 웨이보의 인기 스타 검색어 순위에서 그는 줄곧 1위를 차지했다. 그에 대한 관심이 ‘호텔 델루나’로 이어지면서 최근 방영한 국내 드라마 가운데 현지에서 가장 뜨거운 주목을 받고 있다. 실제로 드라마 관련 내용이 웨이보 검색어에 수시로 오르고 있다.

하지만 ‘호텔 델루나’는 중국에서 정식으로 선보일 수 없다. 한한령의 장벽에 판권을 판매할 수 없게 된 탓이다.

그럼에도 이에 대한 중국 시청자의 관심은 줄어들지 않는다. 실제로 중국 최대 동영상 스트리밍 플랫폼인 아이치이의 대만 버전에서 10일 42만여 명, 11일 49만5000여 명이 동시 접속해 드라마를 시청했다. 실시간



아이유

동시 접속자수가 평균 10만 명이 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호텔 델루나’에 4배 이상 많은 이들이 갑자기 몰린 것은 중국에서 이를 보지 못하는 이들이 우회 접속해 시청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대신 아이유는 다른 지역 시청자에 다가가며 아쉬움을 달래고 있다. ‘호텔 델루나’는 대만을 포함해 미주, 유럽, 중동, 오세아니아 지역과 인도,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필리핀, 태국에서 방송 중이다. 비키, 아이치이, PCCW Viu 등 OTT(인터넷을 통해 TV를 볼 수 있는 서비스) 플랫폼을 통해 국내 방송과 동시에 실시간으로 공개하고 있다.

제작사인 스튜디오드래곤의 김찬혁 사 업전략담당 부장은 12일 “글로벌 확장 전략에 따라 그동안 시도하지 않았던 나라에서도 드라마를 선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백솔미 기자 bsm@donga.com

2년 공백 깬 박하선, ‘오세연’ 향한 진심 통했다

〈평일 오후 세시의 연인〉

채널A 드라마 최고시청률

‘3% 공약’ 달성뎀 포상휴가

연기자 박하선이 채널A ‘평일 오후 세시의 연인’에 대한 진한 애정으로 드라마를 이끌고 있다. 이에 힘입어 채널A 드라마 최고 시청률을 기록하는 등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박하선은 극중 대안학교 생물교사인 이상엽과 불륜에 빠지는 주부 역을 연기 중이다. 섬세한 감정연기를 통해 불륜이란 자극적인 소재를 한결 담백하게 담아냈다는 호평을 얻었다. 동시에 2017년 류수영과 결혼 후 딸을 출산하며 생긴 2년의 공백기를 충실히 채웠다는 평가도 받는다.

연기뿐 아니라 각종 홍보 활동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앞서 채널A ‘도시 어부’와 tvN ‘호구들의 감빵생활’ 등 예능프로그램에 출연해 드라마를 알렸다. 개인 SNS로는 드라마의 명장면과 촬영 후기 등을 전하고 ‘본방 사수’를 독려했었다. 드라마 촬영은 2일 일찌감치 끝났지만 13일까지 내레이션 녹음 등 남은 후반작업에 참여하며 극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채널A ‘평일 오후 세시의 연인’

애쓰고 있다.

박하선의 노력에 ‘평일 오후 세시의 연인’은 매회 시청률을 올리고 있다. 지난달 5일 0.9%(닐슨코리아)를 기록했던 드라마는 10일 2.1%까지 올랐다. 이는 채널A 드라마 중 최고 수치로, 박하선은 앞서 제작발표회에서 해의 포상휴가 조건으로 ‘3% 공약’을 내세운 바 있다.

정화욱 채널A 드라마센터장은 12일 “기대보다 시청자 반응이 좋고, 특히 ‘웰메이드’라는 호평이 많다”고 말했다. 이어 “박하선을 비롯한 연기자들이 제작진과 즐겁게 소통하며 배역에 몰입했다”고 덧붙였다.

유지혜 기자 yjh0304@donga.com